통일화보

6호 주체109(2020)년 (11—12월)

사회주의대진군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불멸의 업적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맞고보낸 영웅적투쟁의 70여일

조국의 품에 안겨 백살장수하는 통일애국투사

6호 주체109(2020)년 (11－12월)

절세의 위인

사회주의대진군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불멸의 업적 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9

조국의 현실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맞고보낸 영웅적투쟁의 70여일 10

현대적으로 개건된 교육도서인쇄공장 18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평양향료공장 20

재자원화생산체계가 확립된 보배공장 22

건설장들에 질좋은 돌가공품을 더 많이 23

단풍이 곱게 물든 평양의 가을 24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27

민족의 향취 넘치는 김장철풍경 28

공화국의 품에서 영생하는 삶 태을민선생 30

조국의 품에 안겨 백살장수하는 통일애국투사 32

재능있는 바이올린제작자 34

명품소개 《황금이삭》 식품 38

기쁨과 환희, 눈물과 절망 36

2

10

18

32

28

앞표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 굽이치는 만수대언덕

뒤표지: 대성산의 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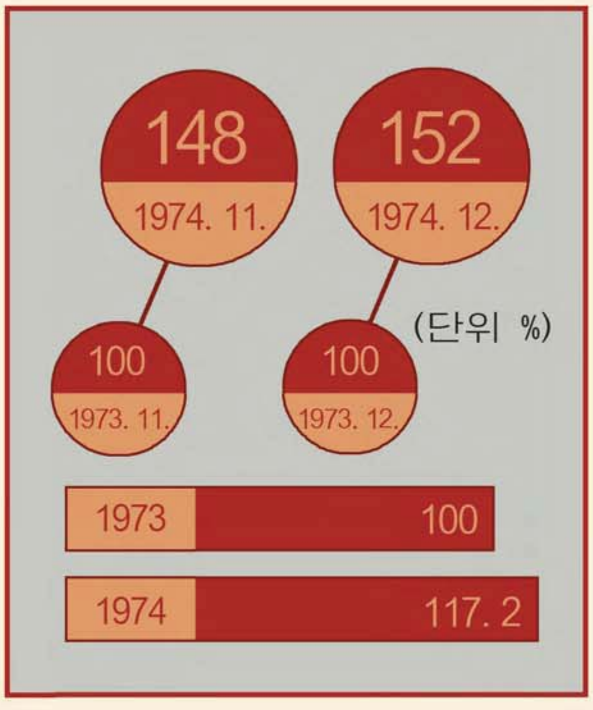
위대한 당을 따라
승리만을 떨쳐가리
사회주의승리의 길로
우린 폭풍치며 나간다
우린 두려움을 모른다
우린 멈춰서지 않는다
자랑찬 행로우에 신심은 백배해
불패의 당을 따라 만난을 이겨온
시련속에서 우린 더 강해지였다
불길속에서 강철이 단련되듯이
노래 《전진하는 사회주의》 중에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들을 몸소 작전하시고 진두에서 지휘하시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89(2000)년 11월

사회주의대진군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불멸의 업적

7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64(1975)년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중에서



70일전투기간 공업총생산액장성도

평양시총계획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4(1985)년 3월

서해갑문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5(1986)년 6월

새로 건설된 전기로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7(1988)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80년대에 일떠선 창조물들의 일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97(2008)년 1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보도문

150일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데 대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한 당시의 사진 및 신문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맞고보낸 영웅적투쟁의 70여일

> 나는 당중앙이 직접 조직하여 함경남북도에 파견하는 수도의 최정예당원사단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5돐명절과 당 제8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는 별동대로서 부여된 영예로운 사명과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
> **김 정 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최상최대의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인민사수전의 최전선으로 용약 달려나가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창조한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수도 평양을 떠난 때로부터 70여일, 비록 력사의 한순간에 불과한 나날이였지만 이 길지 않은 기간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상처를 입었을 때 당원들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이며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자연의 광란이 휩쓴 페허에 배낭을 푼 첫날부터 충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리며 당에서 준 과업을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할 일념안고 분투하여온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떠받들려 함경남북도의 피해지역들에 인민의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도로와 하천들이 큰물에도 끄떡없게 복구되였다.

오늘 당 제8차대회를 향한 80일전투의 진군길에 승리의 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린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영웅적장거는 온 나라 인민들의 혁명적대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며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충성의 보고모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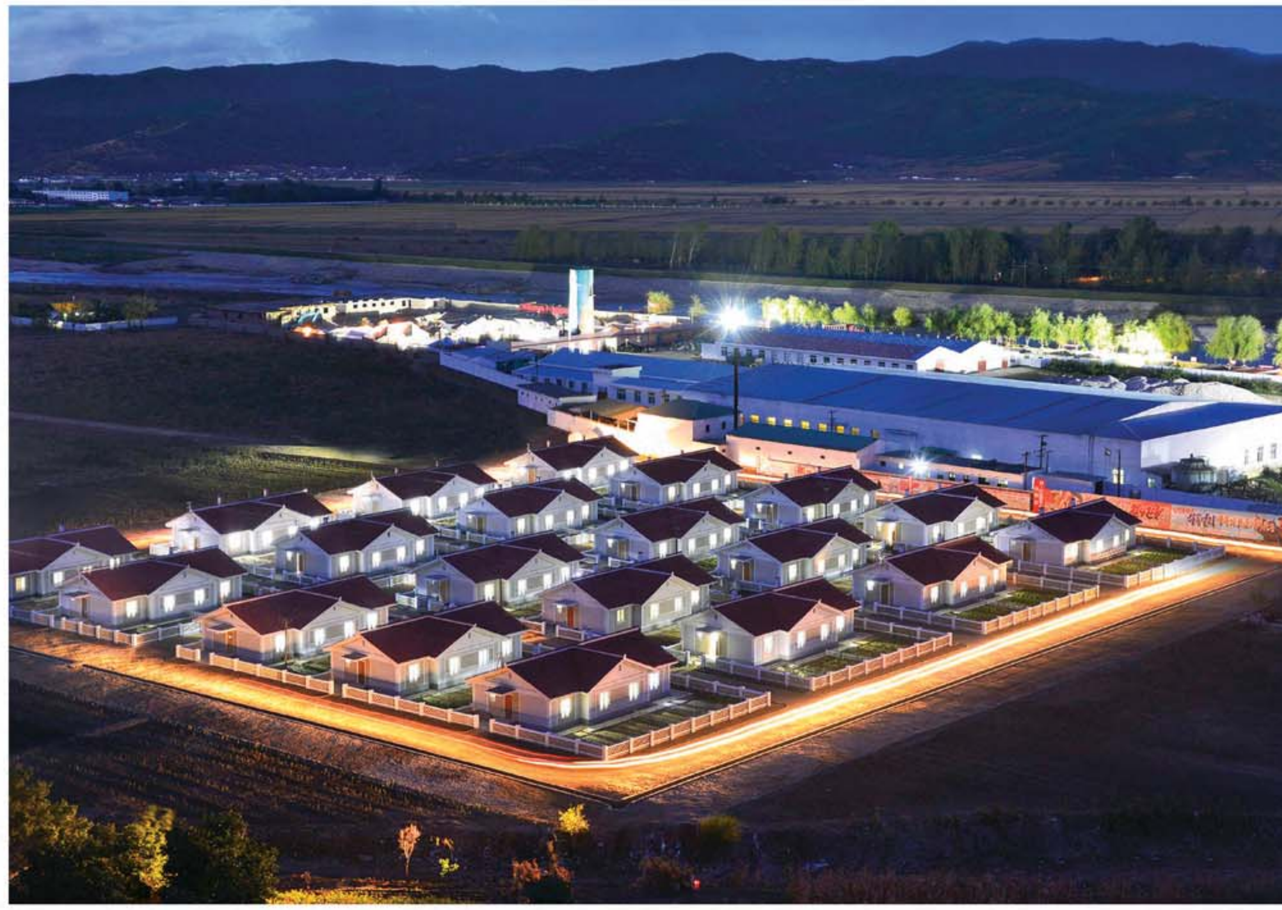
정론

평양은 뜨겁게 포옹한다

인민사수전의 최전선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최정예수도당원사단 평양에 도착, 수도시민들 뜨겁게 환영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당중앙의 열화같은 호소에 화답하여 함경남북도의 제일 어려운 피해복구전역에서 영웅신화를 창조하고 평양으로 돌아온데 대한 신문보도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함경남북도의 피해지역에 일떠세운 선경의 새 마을들



현대적으로 개건된 교육도서인쇄공장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동평양지구에 자리잡고있는 교육도서인쇄공장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전국의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이 공장은 1948년에 조업하였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공장에는 UV다기능인쇄기, 통구리종이량면4색인쇄기, 제책종합흐름선 등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자재와 생산품에 대한 운반을 맡은 이적로보트, 무인운반차들이 갖추어져있다.

그리고 인쇄물의 질상태를 알려주는 실시간검사체계가 도입되고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지능생산체계가 구축되였다.

전반적생산공정이 일신되고 경영활동의 최량화, 최적화가 실현되여 교육도서인쇄공장의 생산능력은 종전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였으며 공장은 로력절약형, 부지절약형, 기술집약형기업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공장의 제품전시장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평양향료공장

얼마전 대동강기슭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평양향료공장이 준공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공장은 천연향료추출, 향료배합, 주입 및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통합생산체계를 이루고있고 향료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된 현대적인 향료생산기지이다.

천연향료생산공정에는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식물의 꽃과 잎, 열매, 씨 등에서 여러가지 정유를 추출해내는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으며 딸기향, 오미자향, 생당쑥향, 솔잎향을 비롯한 각종 향료들을 생산하는 식용향료생산공정과 공업용향료생산공정 그리고 몸향수, 방안향수, 차향수 등 갖가지 향수를 생산하는 향수생산공정이 있다.

실험 및 분석설비들이 갖추어지고 과학토론회실, 도안실, 제품견본실이 꾸려져있는 향료연구소에서는 이미 수십가지의 식용 및 공업용향료를 연구개발한데 기초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오늘 공장에서는 향식물에서 추출한 천연향료로 많은 식용 및 공업용조합향료를 생산하여 선흥식료공장,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보내줌으로써 질좋은 제품생산에 기여하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장윤정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향료들의 일부

재자원화생산체계가 확립된 보배공장

- 평천일용필수품공장 -

평천일용필수품공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지지도자욱이 어려있는 지방산업공장이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이 공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투리철판으로 인민소비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로동자들의 일솜씨를 치하하시면서 재자원화를 경영전략으로 틀어쥐고나갈수 있는 명안을 밝혀주시였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그날의 가르치심대로 오늘도 쓸모없이 버려지는 여러가지 유휴자재들을 모아 재가공하여 각이한 용도의 수지제품, 철제품들을 손색없이 만들어내고있으며 얼마전에는 자체의 힘으로 페기된 방직설비를 기술개조하여 인공잔디 생산설비도 갖추어놓았다.

공장에서 만든 해가림막, 색수지천정판, 대형화분대 등 질좋은 제품들은 인민생활과 건설부문에서 수요가 높으며 인공잔디는 지난해에 있은 각 도건재전시회-2019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g의 파수지, 한덩어리의 파철도 보물처럼 여기고 재생하여 인기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 이 공장을 가리켜 사람들은 보배공장이라고 부르고있다.

사진 방철국, 글 윤금철

여러가지 유휴자재를 가지고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건설장들에 질좋은 돌가공품을 더 많이

- 평양석재공장 -

평양석재공장은 조업후 지난 수십년간 각종 돌가공품들을 수많이 생산하여 건설장들에 보내준 공로있는 공장이다.

모든것이 부족한 오늘에도 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기 위한 생산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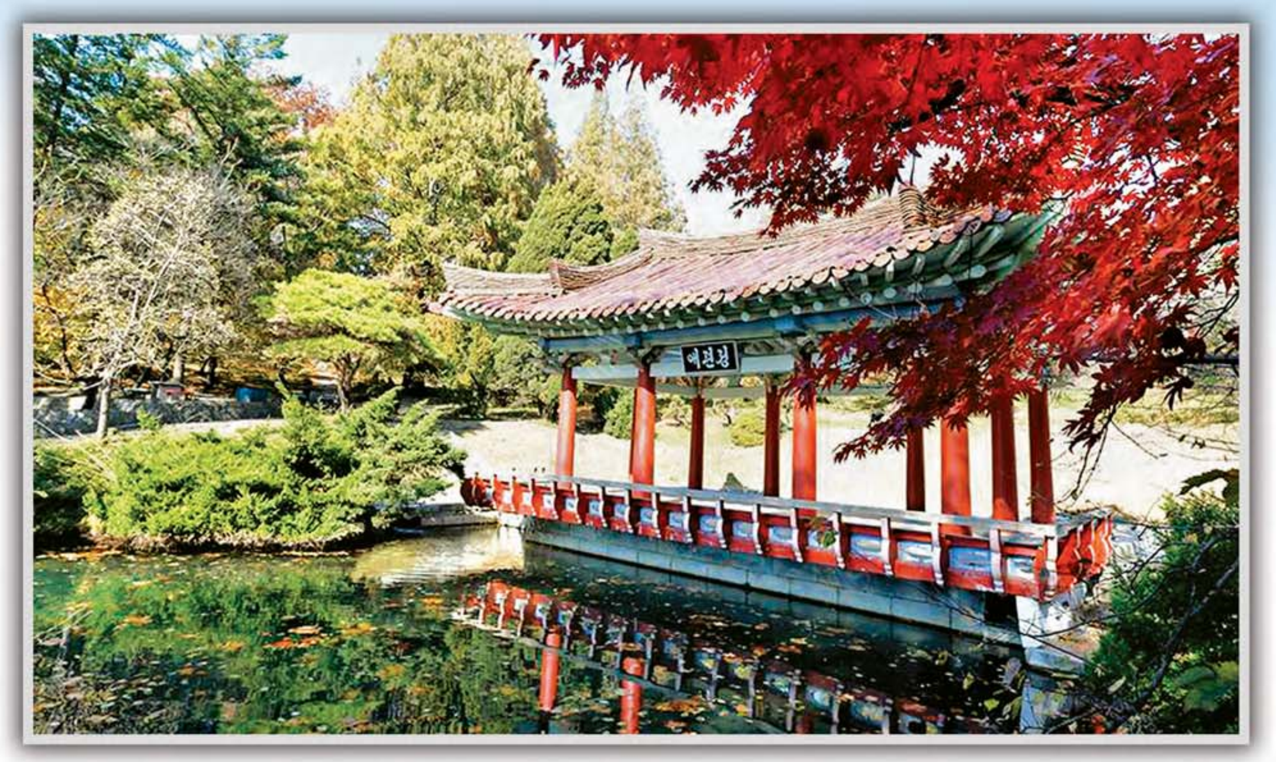
경영전략을 실정에 맞게 세운데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 한편 설비개조에 큰 힘을 넣어 최근에만도 대절기, 중절기 등 절단기들을 유압식으로 개조하였을뿐아니라 판석연마기의 핵심부분품들도 자체로 해결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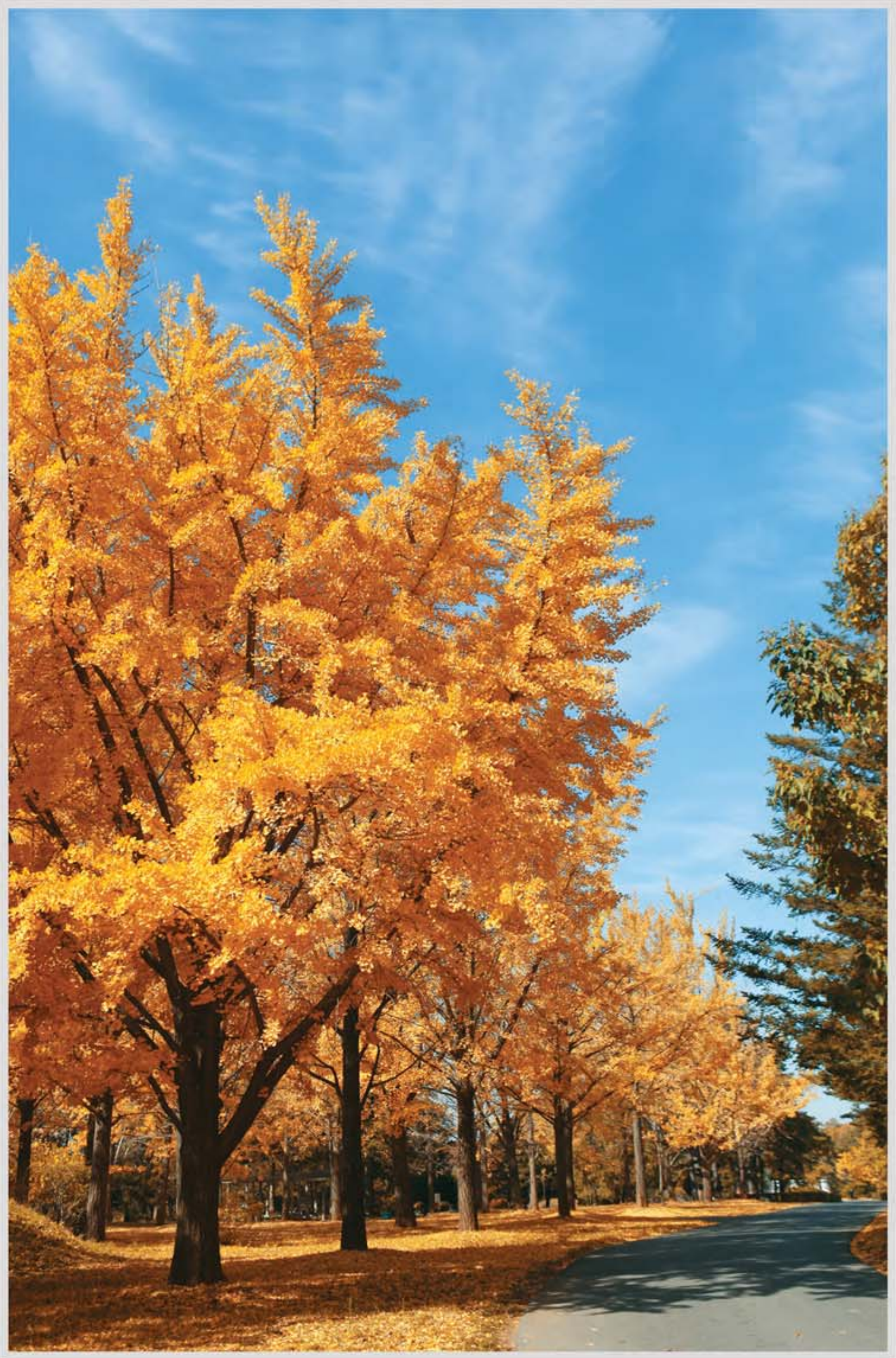
80일전투기간에 질좋은 돌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불같은 열의를 안고 이곳 로동계급은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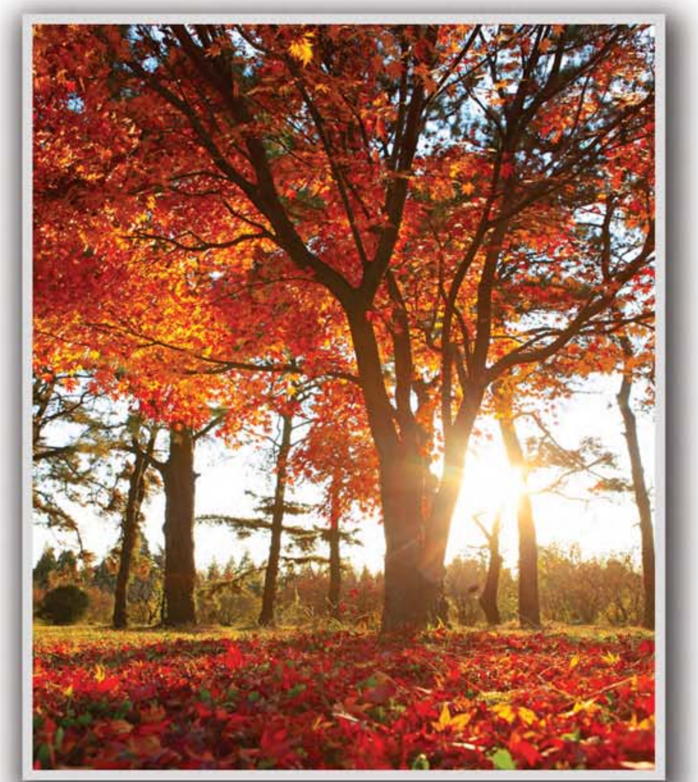
사진 장창욱, 글 장윤정

공장에서 생산한 돌가공제품들이 리용된 청류관의 내부

단풍이 곱게 물든 평양의 가을







11.16.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어머니날이 왔다.

세계적인 재앙과 재난속에서도 비관과 두려움을 모르고 일터와 가정을 성실하게, 강인하게 지켜온 우리 어머니들이다.

자연의 광란이 삶의 보금자리를 휩쓴 엄청난 그 시각에조차 눈물과 한숨에 앞서 한포기의 곡식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결연히 협동벌로 달려나간 우리 어머니들.

이렇듯 억세고 강인한 어머니들이건만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광장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마음속진정, 마음속고백을 터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끝끝내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을 안고 달려온 인민군군인들과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일떠세운 희한한 새 집에 들어서며 또다시 고마움에 울고울었다.

오늘은 당 제8차대회를 향한 80일전투에서 보답의 마음안고 기적과 혁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거니 온 나라 어머니들이시여, 천만자식들이 올리는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글 송영

민족의 향취 넘치는 김장철풍경

마가을에 더더욱 불타던 단풍잎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어느새 보기에도, 듣기에도 흐뭇한 김장철이 왔다.

집집마다에선 먹음직스러운 양념을 그득히 담아놓고 통배추김치며 깍두기, 동치미를 담그느라 결싸게 일손을 놀리는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온다.

김치생산의 공업화가 실현된 류경김치공장을 비롯한 지방의 김치공장들로는 배추를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서고 생산현장들에서는 통배추김치들이 흐름선에 실려 줄줄이 흘러나온다. 그런가 하면 거리의 봉사매대들은 빛갈 곱고 맛좋은 김치제품들을 사들고 기뻐하는 가정주부들로 흥성인다.

볼수록 민족의 향취 짙게 풍기는 이채로운 김장철풍치이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공화국의 품에서 영생하는 삶

태을민선생

- 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

사람들속에서 자기의 이름보다도 예술영화 《흥부전》의 역인물인 《놀부》의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운 태을민선생은 개성이 뚜렷한 보기 드문 성격배우였다.

1916년 11월 서울의 시계수리공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당시 서울동양극장에 들어가 대본필사공을 거쳐 배우가 되였으며 해방후 서울의 여러 극단들에서 배우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다.

그는 새 조국건설의 나날 본격적인 창조활동을 벌리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선과 후방에서 공연활동을 진행하면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를 비롯하여 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다양한 주제의 연극과 영화에 출연하여 참신하고 개성적인 역형상을 수행하였다.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 《심청전》과 예술영화 《내 고향》, 《흥부전》등은 그가 출연하여 인물의 역을 진실하면서도 특색있게 형상한 많은 작품들중의 일부이다.

한때 일부 사람들의 편협한 견해로 무대를 떠나게 되였을 때 그 동무야말로 우리가 아껴야 할 둘도 없는 보배라고 하시며 연극배우가 아니라 영화배우로 창조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믿음은 그의 예술적 재능이 더욱 활짝 꽃펴날수 있게 한 자양분으로 되였다. 위대한 스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던 그는 1969년 경희극 《보람찬 우리 생활》의 공연도중 쓰러져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가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접하시고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시며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시여 주실수 있는 은정을 다 안겨주신 절세위인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와 더불어 태을민선생은 오늘도 영생의 삶을 누려가고있다.

글 장윤정

태을민선생의 가정

지도자의 품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제 6 장

숭고한 의리

1

당과 함께 영생하도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태을민선생에게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서술된 도서 《지도자의 품》 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

태을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우리 당의 정책과 방침을 옹호관철하는데 이바지하였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태을민선생이 받은 명예칭호증서

⇑⇨ 태을민선생이 출연한 예술영화《흥부전》과 경희극 《보람찬 우리 생활》의 한 장면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은 태을민선생의 자손들(2019년 5월 촬영)

조국의 품에 안겨 백살장수하는 통일애국투사

-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 비전향장기수 장호선생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100돐생일상을 받아안은 장호선생

지난 11월 29일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비전향장기수 장호선생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100돐생일상을 받아안았다.

그는 30대 홍안의 시절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섰다가 인생의 황혼기인 80고령에야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신념과 의지의 강자이다.

수십여년세월 한평도 안되는 차디찬 독감방에서 인생의 고엽으로 시들어가던 그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여 맞고보낸 날과 달들은 그대로 기쁨과 환희의 련속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모두에게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의 값높은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이들의 건강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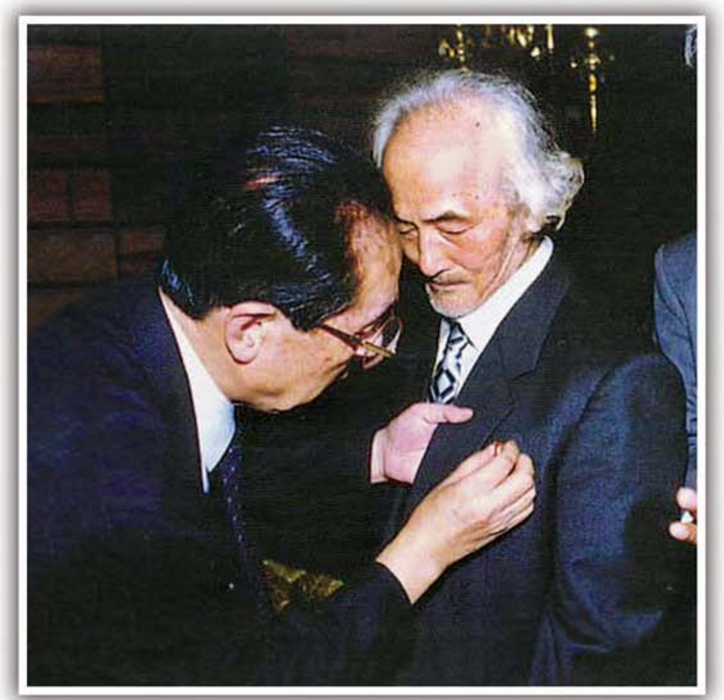
정녕 비전향장기수들이 혁명가의 참된 삶을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사랑은 식어가던 그들의 육체를 재생시킨 불사약이 되였고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생명소가 되였다.

백살장수를 누려가는 장호선생의 복된 삶은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영광은 오직 숭고한 동지애와 혁명적의리를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만 꽃피고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한진아

참관과 휴양의 나날을 보내며

남조선에서 통일애국투쟁을 벌리던 때의 장호선생(앞줄 가운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내고 조국의 품에 안긴 장호선생

페인이나 다름없던 어제날의 수인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백살장수하고있다.

재능있는 바이올린제작자

- 조선장애자예술협회 김승일 -

조선장애자예술협회 로동자 김승일은 청각장애자이지만 전문연주가들도 인정하는 바이올린제작자이다. 그는 품들여 제작한 바이올린을 제9차,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에 출품하여 각각 기술상과 과학기술우수상을 수여받았다.

어릴적에 청각을 잃은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장애자기능공양성반(당시)에서 자기의 재능을 련마하면서 악기제작자가 될 꿈을 소중히 품었다. 하지만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그가 악기를 만든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는 이악한 노력끝에 마침내 피아노우에 자기가 만든 바이올린을 올려놓고 피아노의 건반이 눌리울 때마다 울림판에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수를 손감각으로 감수하는 능력을 터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울림판의 두께를 가늠하며 완성하는 독특한 바이올린제작방법을 소유하게 되였다.

전시회장에서 그가 만든 악기를 켜본 연주가들은 바이올린의 음색이 선명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가늘고 정서적일뿐아니라 음정도 좋다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는 《구급차형약함》, 《꽃장식벽걸이》를 비롯한 나무공예품들도 창작하여 지난해 진행된 전국조각, 공예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늘도 그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장애자보호정책속에 재능있는 악기제작자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사진 장창욱, 글 윤금철

악기제작자들과 함께(가운데)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에 참가한 김승일과 그가 만든 바이올린(2019년 9월 촬영)

조선장애자기능공양성반 개교식에서 찍은 사진(2013년 5월)

청력회복검사를 받기 위해 안해와 함께 병원을 찾은 김승일

기쁨과 환희, 눈물과 절망

공화국에서

련이어 들이닥친 폭우와 태풍에 의해 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재난의 흔적을 털고 희한한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새집들이를 맞이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이 꿈같은 현실은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가셔주는것을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인민사랑의 산화폭이다.

《뜻밖에 들이닥친 대재앙이 집과 가산을 송두리채 앗아갔어도 어머니당의 사랑의 손길은 자연이 몰아온 화를 복으로 바꾸어놓았다.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더 따뜻이 품어주시고 고락을 함께 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뜨거운 진정이 오늘의 천지개벽을 펼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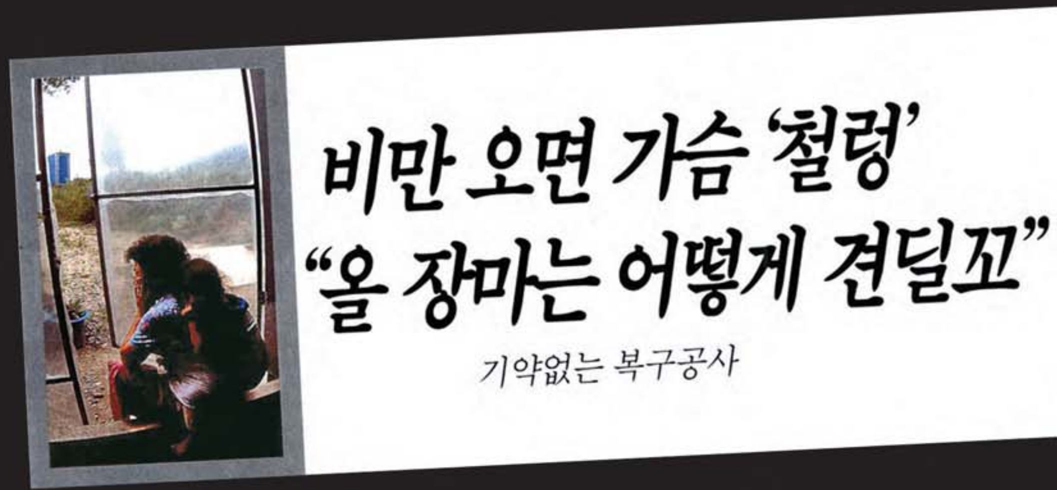
정녕 우리 원수님이 제일이시고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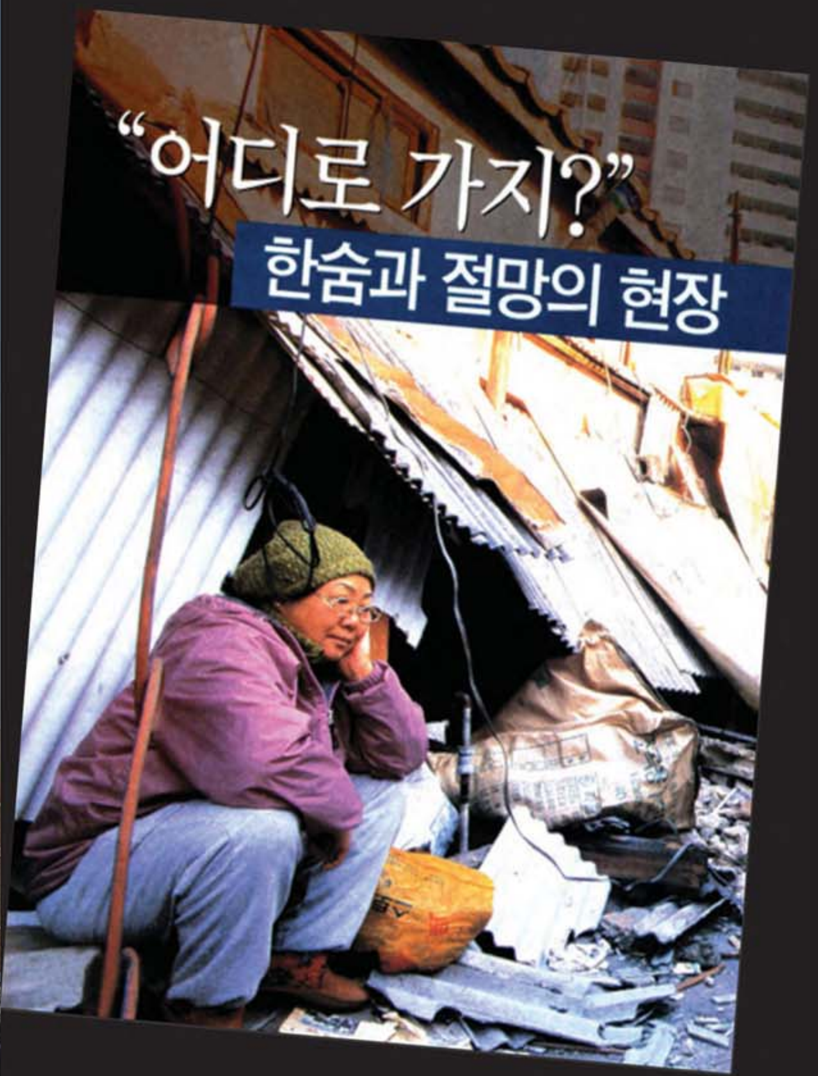
- 함경남도 홍원군 경포로동자구 주민 -

남조선에서

남조선에서도 여러 지역들이 큰물과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품치며 범람하는 큰물과 강풍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하고 숱한 살림집들이 허물어졌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피해지역들에서 울리는것은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앉은 수재민들의 절망의 한숨소리,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뿐이다.





명품소개

《황금이삭》식품

《황금이삭》식품은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 강냉이를 가지고 만든 구수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건강장수식품이다.

노르스름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맛을 가진 강냉이국수와 동맥경화증예방에 특효인 옥쌀기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겨찾는 강냉이단묵과 강냉이강정, 리뇨작용에 좋은 강냉이수염으로 만든 강냉이차를 비롯하여 《황금이삭》식품은 20종에 40여가지나 된다.

맛이 좋을뿐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리놀산과 셀렌, 마그네시움, 철 등 사람의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과 약성분이 풍부히 들어있어 《황금이삭》식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글 한진아

《황금이삭》식품들의 일부

《황금이삭》식품들을 생산하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

력사유적

고구려벽화무덤 발굴

최근 남포시 룡강군 은덕지구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이 새로 발굴되였다.

은덕지구 북쪽의 산중턱에 위치하고있는 무덤은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외칸돌칸흙무덤이다.

안길입구에는 화강석판돌을 다듬어 만든 대문형식의 돌문이 있는데 이 문들에 쇠로 만든 고리형손잡이가 붙어있다. 안길은 안칸의 남벽중심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있고 안칸은 평면정방형을 이루고있다. 벽체는 남벽과 서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으며 바닥에는 장방형의 낮은 관대가 놓여있다.

벽화의 기본주제는 사신도이다. 서벽에는 붉은색안료로 눈을 강조한 대가리와 길게 누운듯 한 몸통, 솟구쳐오르다가 구부러든 꼬리가 달린 백호가 형상되여있다.

발굴과정에 범이나 개와 같은 짐승의 대가리와 앞다리, 말의 허리 뒤부분을 형상한 벽화쪼각들, 무덤칸천정굽도리에 넝쿨무늬를 그린 벽화쪼각들이 나왔다. 이외에 관대우에서 관못 1개가 발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발굴정형을 심의하고 이 무덤은 룡강일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신도주제의 고구려벽화무덤이며 그 축조시기는 6세기경이라고 확증하였다. 또한 고구려벽화무덤들가운데서 쇠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대문형식의 돌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무덤이 흔치 않은것만큼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 특히 매장풍습 등을 연구하는데서 학술적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였다.

글 장윤정

무덤의 안길(우)과 안칸(아래)

무덤에서 나온 다양한 주제의 벽화쪼각들

❖ 루계 401 ❖ 낸곳 통일화보사 ❖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493ㄷ

ISSN2305 8544
9 772305 854008